

첫 지상파 데뷔·주연작 배우 정수빈 "말도 안되는 일 벌어졌죠"

SBS TV 종방극 '트롤리'로 첫 주연 나서 배우 김현주·박희순과 호흡하며 성장해

배우 정수빈(25)에게 SBS TV 종방극 '트롤리'는 은인과도 같다. 김세론(23)이 음주 운전 사고로 하차, 뒤늦게 투입됐지만 제 몫을 해냈다. 극중 캐릭터명은 '김수빈'으로 성은 달라도 이름이 같아 운명처럼 느껴졌다. 첫 촬영까지 주어진 시간이 2주밖에 안 됐지만, 임신·유산을 겪는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자문도 구했다. 첫 지상파 데뷔·주연작으로 "브라운관에 발을 내디뎠을 때 스태프들이 많이 반겨줬다"며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눈을 딱 떠봤는데 공교롭게 (캐릭터명이) 나와 같은 수빈이었다. 2주 밖에 없었지만, 집중해서 잘 표현해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막연히 쉽지가 않음에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만약 '시간이 너무 없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머물러 있었을 것 같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 먹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PD·작가님, 스태프, 선배님 등이 있어서 가능했다. 많이 의지했고, 혼자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이 드라마는 과거를 숨긴 채 조용히 살던 국회의원 '남중도'(박희순) 부인 '김혜주'(김현주)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며 부부가 마주하는 딜레마를 그렸다. 수빈이 중도·혜주 부부 아들 '남지훈'(정택현) 사망 후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마지막회에서 혜주는 중도의 5년 전

성폭행 사건을 폭로하고 자신의 삶을 찾았고, 수빈은 전 남자친구 '허정대'(김균하) 아이를 임신해 지운 사실을 밝혔다. "그 동안 한국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은 결말 같다. 큰 반전이 있어서 결말 관련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작가님이 배우들에게 각기 다른 정보를 알려줬다. 나중에 결말을 알고 다들 놀랐다"고 귀띔했다.

"수빈이 계속 혼란을 야기해 나쁜 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지훈이 수빈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수빈은 지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혜주와 같이 지내면서 좋은 사람인 줄 느꼈다. 혜주가 아프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본인이 행복한 게 맞지 않느냐'고 용기를 줬다. 트롤리 열차 종착역에선 자신을 위해 더 행복했으면 했다. 이 드라마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보여줬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정형화된 게 아니다. 마음이 맞고 서로 응원하고 의지하는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수빈은 유산 아픔이 있는 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캐릭터에 접근했다. "수빈은 걸로 보면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 날카롭게 표현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보이길 바랐다"며 "처음에 1~8부까지 극본을 받았는데, 첫 신이 6부였다. 많은 서사를 이해해야 해 직접 산부인과에 가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 초기에 계류유산을 경험하더라. 아이를 떠나 보면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며 "김문교 PD님이 내가 표현하는 수빈이가 많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하더라. 근데 '이해되고 응원할 것 같다'고 했다. 인물이 갑자기 바뀌어서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PD님과 선배들이 내가 그리려는 수빈이를 응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소년심판'·'3인칭 복수'(2022)에 이어 아픔이 있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잠 신기하다"며 "작품 속 아픔을 지닌 인물이 성장하지 않느냐. 나도 그 아픔을 공감하고 성장하는 단계까지 표현하다 보니 위로와 치유를 받았다. 인물을 통해 배운 점도 많다"고 전했다. "이번에 트롤리 본방사수를 하면서는 '스스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46), 박희순(53) 등과 호흡하며 성장한 지점도 많다. 특히 김현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다며 "단편적인 것도 풍부하게 표현하더라. 나도 성장해 김현주 선배처럼 한 곡이 아니라 다양한 곡 연주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희순 선배는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며 "현장에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태해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현주 선배와 호흡하며 정말 놀랐다. 배우가 온전히 소통하면 하나 되는 순간을 느끼는데, 선배님은 그 순간이 계속 발휘될 수 있게 해줬다. 선배님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따뜻한 마음을 교류했고, 진심으로 연기하는 법을 배웠다. 차 안에서 수빈과 혜주가 진심으로 응원하는 신이 있었는데, 선배가 '우리 오늘 잘 통했지?'라고 하더라. 선배는 자신이 표현해야 할 때 100% 보여주고, 상대가 보여야 할 때는 배려해줬다. 나만 온전히 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연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느꼈다. 역시 달랐다."

정수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와 출신이다. 2019년 영화 '주근깨'로 데뷔, 3년 여만에 주연으로 발돋움했다. 요즘 한예종 출신 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고, 바톤을 잘 터치해 후배들한테 주고 싶다"고 밝혔다.

선배들 개개인의 매력을 다 담고 싶다는 정수빈은 "변화한 선배가 '육룡이 나르샤'(2015-2016) 찍을 때 학교 연습실에 나와서 혼자 연습하더라. '연습발레'라고 하더라. 나도 선배처럼 최선을 다해 인물을 탐구하

고, 계속 노력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

"너무 상투적일 수 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배우가 되고 싶다. 진심을 담아서 연기해 위트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내 눈이 좋다고 하더라. 영화 '헤어질 결심'(2022)을 보면서 진심이 담긴 연기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느꼈다. 내가 '싫어'라고 말해도 눈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면 전달이 되더라. 거짓 없이 투명하게 연기하고, 눈빛이 좋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멜로가 체질'처럼 20대 청춘을 응원하는 작품이나 액션물을 하고 싶다. '나의 아저씨'처럼 딱딱한데 따뜻한 작품도 좋아한다."

1위인데 우울하네... 영화 '대외비' 개봉 첫 주말 정상



영화 '대외비'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귀멸의 칼날'을 힘겹게 제치며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예매 관객수 순위에선 6위로 떨어지며 앞으로 흥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개봉 9주차 주말에 10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으며 역대 국내 개봉 일본 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대외비'는 3~5일 25만7049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이 봐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49만6719명이다. '대외비'는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가카스로 뺏겼다. 영화는 개봉 첫 날이던 지난 1일 18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켈로즈의 출발을 했으나 뒤이어 개봉한 '귀멸의 칼날:상원집결, 그리고 도공 마을로'에 밀리며 이들 연속 2

3~5일 25만명 봐 주말 박스오피스 1위 23만명 본 '귀멸의 칼날' 힘겹게 제치네 '대외비' 예매 6위...앞으로 흥행 어두워

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토요일(4일)과 일요일(5일)에 다시 한 번 판을 뒤집으며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서는 데 성공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전해웅'과 장막 뒤에서 정계를 좌지우지 하는 인물인 '권순태'가 대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권순태의 입김으로 전해웅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전해웅은 조직폭력배 '김필도'와 손잡고 반격을 시작한다. 이성민이 권순태를, 조진웅이 전해웅을, 김무열이 김필도를 연기했다. 연출은 '악인전'(2019)을 만든 이원태 감독이 맡았다.

다만 '대외비'는 6일 오전 8시 현재 예매 관객수 순위가 6위(예매량 1만2661명)로 떨어져 있어 앞으로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8일 개봉하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새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예매량 10만6555명)이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할리우드 스릴러 '폭풍폭' (1만5214명), '더 퍼스트 슬램덩크'(1만4598명)에도 밀려나 있다.

'귀멸의 칼날:상원집결, 그리고 도공 마을로'는 주말 23만4945명이 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29만9900명이다. 이번 작품은 탄지로·젠이츠·이노스케 그리고 음주우즈이 텐젠이 헬기 규타로·다기 남매와 벌이는 전투를 담았다. 또 탄지로가 새로운 칼을 찾아 도공 마을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귀멸의 칼날:상원집결, 그리고 도공 마을로'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7번째 작품이다. 2021년에 나온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은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21만명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11만4806명을 추가, 누적 관객수 384만3529명을 기록해 역대 국내 개봉 일본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이 기록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전엔 '너의 이름은.'(380만명)이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도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4위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6만5780명·누적 13만명), 5위 '엔트맨과 와스프:퀵타임메이아'(6만5403명·누적 150만명) 순이었다.

더보이즈, 신곡 '로어' 활동 호평 속 마무리



그들 더보이즈(THE BOYZ)가 미니 8집 활동을 호평 속에 마무리했다.

더보이즈는 지난 5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 무대를 마지막으로 미니 8집 '비 어웨이크(BE AWAKE)'의 공식 음반 활동을 종료, 약 2주 간 이어진 컴백 활동을 성료했다.

신곡 '로어(ROAR)'는 음원 발매 직후 멜론, 벅스 등 최신 음원 차트 내 전국 줄 세우기에

성공했고 새 앨범은 싱가포르, 핀란드,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1개국 정상에 등극했다. 또한 국내 최대 음반 판매량 집계사이트인 한터차트에서는 2월 4주차 주간 음반차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더보이즈는 1일 '쇼! 챔피언'을 시작으로 3일 '뮤직뱅크', 4일 '쇼! 음악중심', 5일 '인기가요'까지 공중파 3사 음악방송 1위를 석권하며 주요 음악방송 정상 4관왕을 기록했다. 단기간 동안 호성적을 달성한 더보이즈는 '성장'을 키워드로 전개된 이번 활동의 목표치를 넘었다고 평가된다.

이같은 팬들의 호평에 힘입어 더보이즈는 지난 4일, 음악방송 녹화 직후 미니 팬미팅을 개최, 추첨을 통해 참석한 수백명의 팬들과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멤버들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더비(팬덤명)가 만들어준, 더비와 함께하는 1위는 늘 행복하다. 늘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랑해'라는 멘트와 함께 2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 인증샷을 공개했다.

한편 미니 8집 '비 어웨이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더보이즈는 국내외를 오가는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수, 오는 31일 데뷔 6년8개월 만에 첫 솔로앨범 발매

블랙핑크 '솔로 프로젝트' 마지막주자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가 데뷔 6년8개월 만에 내놓는 첫 솔로 앨범 발매일을 확정했다.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수는 오는 31일 솔로 데뷔 앨범을 공개한다.

이날 공개한 앨범 티저 이미지엔 들꽃과 풀잎들이 가득 피어난 잔디 위에 붉은 천이 넓게 펼쳐져 있다. YG는 "전반적으로 푸르른 배경과 강렬한 레드 컬러가 선명하게 대비되며 지수가 첫 솔로 데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녹아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YG는 지수의 솔로곡 뮤직비디오 촬영 소식과 함께 '블랙핑크' 영상들 가운데 역대 최대 제작비를 투입했다"고 예고했다. 해외 유통

케이션으로 기획됐다.

YG는 2018년부터 블랙핑크의 솔로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병행해왔다. 앞서 솔로로 나선 제니, 리사, 로제 모두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 K팝 여성 솔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수는 JTBC 드라마 '설강화' 등 연기를 통해 솔로 활동을 해왔다.

한편 블랙핑크는 약 150만 명을 동원하는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를 진행 중이다.

오는 4월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7월 영국 '하이드 파크 브리티시 서머 타임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다.



KO 당한 앤트맨...크리드3 美 박스오피스 1위

개봉 첫 주말 매출액 5865만 달러 기록

복싱 영화 '크리드3'가 미국 개봉 첫 주말 '앤트맨과 와스프:퀵타임메이아'를 밀어내고 미국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크리드3'는 3~5일 전미 4007개관에서 5865만 달러를 벌어들여 3월 첫 번째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크리드3'는 '크리드'(2015) '크리드2'(2018)로 이어지는 '크리드'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다. 전작들의 개봉 첫 주말 성적은 '크리드'가 2960만 달러, '크리드2'가 3550만 달러였다.

'크리드' 시리즈는 '록키' 시리즈에서 록키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아폴로 크리드의 아들 '아도니스 크리드'(마이클 B 조던)의 이야기를 그린다. '크리드3'는 록키의 후계자로 불리며 세계 챔피언의 삶을 살아가던 크리드 앞에 한때



는 친형제 같았던 친구 '데미안'(조너선 메이저스)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 작품은 주연 배우인 마이클 B 조던이 연출도 맡았다. 국내에선 지난 1일 개봉했지만, 박스오피스 23위에 그치며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